

# Global Goings-on

\* 주요국의 보건복지 정책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최근 연구 자료를 선정하여 번역 정리한 글임.

## Connecting People with Jobs: Activation Policies in the United Kingdom

■ OECD. 252p. 2014. ISBN(9789264217188)

이 보고서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다시 일 자리로 돌려보내기 위해 최근 영국이 추진하고 있는 활성화 정책(Activation Policies)을 검토하고 있다. 보고서는 여러 나라들이 고용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실업급여 등의 지출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통합 수당(Universal Credit), 일자리 프로그램(Work Programme) 등과 같이, 새로운 주요 프로그램들을 통해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정책을 변형, 개선하는 시도가 OECD 국가들의 개혁 노력의 선봉에 있어 왔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또 그 효과를 제대로 평가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이 보고서는 현재까지의 노력에 추가되어야 하거나 수정되어야 할 여러 영역들을 밝히고 있다. 영국에 대한 이 보고서는 앞으로 출판될 시리즈 중 첫 번째 보고서다.

## Comparing the Robustness of PAYG Pension Schemes

■ OECD. 32p. 2014.

이 보고서는 부과방식(Pay-As-You-Go)으로 연금을 총당하는 확정급여방식(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방식(Defined Contribution)을 비교하는 틀을 제공하고 있다. 각 방식이 외부 충격에 얼마나 튼튼한 지 비교해 보기 위해 각 방식별 모델을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험해 보았다. 두 방식에는 동일한 인구 요건(나이, 수입에 따른 근로자 분포와 나이에 따른 생존율 분포)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각각의 상이한 충격(생산성, 이민, 수명 등)이 두 방식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 분석되었다. 또한 고령화 충격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 개혁(기여율 제고, 연금급여액 감소, 은퇴연령 제고 등)이 두 방식에 미치는 영향도 비교 분석되었다.

## Progress on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 2014 Update

WHO/UNICEF. 78p. 2014.

ISBN(9789241507240)

약 166개국이 MDG 목표 중 하나인 개선된 식수자원 공급 목표에 도달했고 77개국은 개선된 위생 시설을 달성했다. 2012년 통계에 따르면, 세계인구의 89%는 더 개선된 식수를, 64%는 더 안전한 위생시설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MDG 달성을 위한 골목할 만한 진전이 있지만 지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집요하게 지속하게 됨에 따라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에서의 안전한 식수 확보 및 불결한 위생 문제는 여전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 간의 불공평한 발전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2014년 업데이트 판은 이 보고서는 3가지 부분으로 접근한다. 첫 번째는, 개선된 식수자원과 위생시설의 접근 현황과 추세를 보여주고 두 번째는, 개선된 식수자원과 위생시설에 접근하는 데에 나타나는 불평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세 번째는, post-2015 개발 목표아래 안전한 식수와 위생서비스 접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이 노력을 이행하는 데에 겪을 도전과제들을 조명한다.

이 보고서는 MDG 개선된 식수자원 목표 중 88%가 2010년에 이미 달성되었음을 강조한다. 1990년 전 세계 인구의 76%가 개선된 식수자원에 접근했다면 2012년에는 23억명이 늘어난

89%로 증가했다. 또한, 약 40억명에 가까운, 세계인구의 56%가 수도설비를 갖춘 식수를 이용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위생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은 1990년 51%에서 2015년 25%로 줄이겠다는 MDG 목표는 1990년 49%에서 2012년 64%가 개선된 위생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당초 목표를 밀돌긴 하나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약 7억 4천 8백만 명-이들 중 대부분이 가난한 소외된 계층-은 여전히 개선된 식수자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한다. 이들 인구의 약 25%(1억 7천 3백만명)는 위생처리가 되지 않은 지표수에 의존하고 있고 약 90%는 시골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15년에는 5억 4천 7백만명의 사람들이 개선된 식수에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위생시설에서도 2012년까지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개선된 위생시설에 접근하지 못한 사람의 감소율이 1990년 27억명에서 2012년 25억명에 그쳐 단 7%의 감소율을 보였다.

이 보고서는 개선된 식수자원과 위생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다수, 특히 시골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소외 계층이 더 안전하고 개선된 식수자원과 위생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2015년 post-2015 개발의제 아래 식수 및 위생(WASH: drinking water, sanitation and hygiene)에 관한 폭 넓은 기술협의로 구성된 목표를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협약의는 WHO/UNICEF의 식수공급과 위생에 관한 공동 모니터링 프로그램(JMP)이 기술

협의를 맡고 100개 이상의 식수 및 위생관련 조직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누구나 개선된 식수자원과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을 달성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전한다.

진정한 MDG 달성을 위해선 취약소외계층의 경제적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보고서는 끝을 맺는다.

**World Health Statistics 2014**

WHO. 180p. 2014. ISBN(978924069267)

MDG 목표달성을 위한 시간이 1년 남은 가운데, 이 보고서는 통계자료를 통해 보건관련 목표달성 정도를 살펴보고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통계치를 살펴보면, MDG 보건관련 목표는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00년에서 2012년 동안, 5세 이하 어린이 사망률은 47%까지 감소해 이는 1,000명당 사망자수가 90명에서 48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어린이 사망과 관련해,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간의 불공평성은 여전히 크게 존재함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5세 생일 전에 사망하는 어린이의 수는 아프리카가 1,000명당 95명으로 1,000명당 12명인 유럽보다 8배나 더 높은 실정이다.

2000년에서 2012년 동안, 홍역으로 사망한 전 세계 사망자수는 약 56만 명에서 약 12만 명으로 80%가까이 줄어들었다. 특히, 2012년, 12~23개월의 영아의 84%가 홍역백신접종을 받는 등 대부분의 국가에선 매우 높은 수준의

백신접종을 받고 있음을 이 보고서는 소개하고 있다.

모성건강은 2015년까지 누구나 생식보건서비스를 이용하고 1990년 모성사망자수를 75%까지 줄이는 목표를 설정했다. 2013년 모성사망자수는 약 29만 명으로 1990년 약 52만 명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진전을 보였으나 아직까지 약 800명의 여성들이 매일 임신과 출산 중 합병증으로 사망하고 이러한 일들이 대부분 개발도상국 여성들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주요 원인의 일부분으로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의 보건인력 수의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고소득 국가는 만 명당 평균적으로 90명의 간호사와 조산사가 있는 반면, 저소득 국가는 만 명당 간호사나 조산사의 수가 2명 이하이기 때문이다. 이는 절대적인 보건인력 수의 부족이 생신보건 서비스의 질과 그로 인한 영유아와 모성 건강의 위협이 되었음을 야기하므로 보건인력 증원 및 확충을 위한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보건관련 MDG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이 201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누구나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강조하며 끝을 맺는다.

## Pension Fund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Lessons from Australia and Canada

■ Georg Inderst. *Rotman International Journal of Pension Management*, 7(1), 2014.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현황을 살펴 보면 전통적인 자산군으로 대표되는 주식과 채권에 투자비중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주식: 27.41%, 채권: 61.93%)<sup>1)</sup>. 하지만 최근 해외 연기금의 투자자산 트렌드를 분석해 보면 전통적인 자산군인 주식, 채권 위주에서 탈피하여 대체투자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비중 증가와 더불어 사회기간시설(Infrastructure)에 대한 투자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고에서 소개할 연구는 사회기간시설에 대한 투자를 선도하고 있는 호주와 캐나다의 연기금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투자자산의 다각화를 강조하고 있다.

호주의 연기금은 이미 1990년대 초반에 사회기간시설에 투자를 시작하였고, 캐나다 연기금 또한 2000년대 초반부터 사회기간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 연기금의 사회기간시설 투자비중은 각각 5%로 전 세계 연기금의 평균인 1%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사회기간시설 투자가 활발하지 못한 이유는 다음의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첫째, 자산 가치의 고평가 및 지나치게 낙관적인 수요에

측은 미래의 불확실성이 발생할 경우 자산 가치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지니고 있다. 둘째, 전통적인 자산군과 비교했을 때,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셋째, 사회기간시설에 대한 투자자산 상품의 부족으로 인해 분산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호주와 캐나다의 연방 정부는 연기금의 사회기간시설에 대한 투자 장려 및 사회기간시설 투자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고 규제 측면에서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먼저 사회기간시설 투자 상품을 다각화하여 다양한 투자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상품에 대한 특성과 상품 구성 과정을 명확화 하여 투자자가 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규제적인 측면에서는 비유동성 자산에 대한 투자제한을 자제함으로써 사회기간시설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관리·감독을 최소화하여 투자자의 투자심리 위축을 최소화하였다.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 연기금을 통한 부채조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사회기간시설에 대한 투자 또한 활성화 되었다. 사회기간시설 투자는 확정된 수익과 낮은 변동성 때문에 보수적인 성격을 지닌 연기금 또는 기관투자자가 투자하기 적합한 자산군이라고 본 연구에서는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와 캐나다의 사례에서 볼 수 있

1) 국민연금 공표통계(안)(2014.7), p.13 참조.

듯이 사회기간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환경이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하고 발전된 자본시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정부와 투자자, 그리고 금융시장 참가자들 간의 신뢰가 구축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비단 사회기간시설 투자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금융시장과 금융상품에 적용되어야 하는 덕목이므로 현재 우리의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여 자본시장의 발전방안을 강구하여야만 국민연금 또한 이를 토대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Pension Funds and Stock Market Volatility: An Empirical Analysis of OECD Countries**

■ Ashok Thomas, Luca Spataro, Nanditha Mathew. *Journal of Financial Stability*, 11, pp.92~103, 2014.

본 연구에서는 OECD 34개국을 대상으로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주식시장에 대한 연기금의 투자와 주식시장 변동성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OECD 34개국의 Panel data를 이용하였고, 데이터 기간은 2000년부터 2010년으로 한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으로 설정하였고, 설명변수로는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 인플레이션, 1인당 소득, 총 주식 거래액, GDP 대비 공채(public debt)비율로 구성되어있다.

각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OECD 34

개국의 평균 주식시장 변동성은 0.172로 나타났다. 전체 연기금 중 17.1%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었으며, 평균 인플레이션은 3.317%로 나타났다. 1인당 소득은 28,365 US Dollar, 총 주식 거래액은 1조 3,870억 US Dollar, GDP 대비 공채 비율은 45.46%로 나타났다.

첫 번째 분석은 각 국가마다 통제되지 않는 국가별 효과가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random effect 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과 총 주식 거래액에 대해서 회귀계수가 음(-)의 값을 보였고, 나머지 회귀계수에 대해서는 양(+)의 값을 나타내었다. 즉,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증가할수록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동일한 맥락에서 총 주식 거래액이 클수록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1인당 소득이 클수록, GDP 대비 공채비율이 높을수록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결과를 보였다.

위의 모델은 OECD 34개국의 전체적인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에서 종속변수(주식시장의 변동성)의 전체 변화분에 대한 효과를 제거하여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큰 국가가 어떤 설명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Probit 모형을 통해 재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종속변수를 더미변수로 설정하였고 OECD 평균보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큰 국가의 경우 1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을 부여하였다. 설명변수에는 주식투자 여부를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설명변수에 포함시켰으며, 연기금이 주식에 투자한 경우 1을 부여하

고,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경우 0을 부여하였다.

Probit 모형 분석결과, 종속변수와 주식투자 여부를 나타내는 설명변수가 음(-)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연기금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경우 OECD 평균보다 낮은 주식시장 변동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기금이 주식시장에 투자한 경우의 주식시장 변동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변동성이 16% 낮게 나왔다.

Probit 모형의 경우 오차항을 정규분포로 가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Logit 모형을 사용하여(logit 모형은 오차항이 정규분포여야 한다는 가정이 필요하지 않음) 다시

한 번 분석하였다. 그 결과 또한 연기금이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15.7% 낮아진다고 나타났다.

Logit분석과 Probit분석을 통해 연기금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약 16%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연기금의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가 주식시장의 안정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보고하고 있다.

■ 편역 | 라기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원)

정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원)

주성철(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